

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온라인 자동차보험 판매 호조

- 손해보험업계가 최근 공개한 실적 발표 자료에 따르면, FY2010 1/4분기(2010년 4~6월) 온라인전용 자동차보험회사들의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 - 올해 1/4분기 주요 8개 온라인 자동차보험회사들의 수입보험료는 총 507억 엔(잠정치)에 달해 전년동기대비 7.8% 증가함.
 - 8개 회사 중 6개 회사들의 실적이 전년동기대비 늘어난 가운데, 특히 최대 온라인 자동차보험회사인 소니손보, 지난해 영업을 시작한 이다자인손보와 SBI손보의 수입보험료가 타사대비 저렴한 보험료를 강점으로 10%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.

- 최근의 온라인 자동차보험 판매 호조는 신차판매 증가에 따른 자동차보험시장의 회복세 전환과 가격 경쟁력 등에 기인하고 있지만, 하반기 친환경 차량에 대한 지원 중단 및 경영수지 악화가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.
 - 최근 세계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들고 친환경 차량 감세와 같은 정부의 자동차산업 진흥책이 신차판매대수 증가로 이어지면서 글로벌 경기침체로 둔화되었던 자동차보험시장은 올해 1/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.8% 성장하며 점차 회생하는 모습임.
 - 반면, 내수경기 부진으로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커지면서 대형 오프라인 자동차보험 고객들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온라인 자동차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음.
 - 그러나 전문가들은 하반기 친환경 차량에 대한 지원 중단으로 신차판매 감소가 예상되고, 보험금 지급 증가에 따른 손해율 급증으로 미쓰이다이렉트손보 등 일부 회사를 제외하고는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등 온라인 자동차보험업계의 미래가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고 보고 있음.

(일본경제신문, 9/7)